수해복구 출동 북구 공무원들 "우리 관할구역 아니네…" 철수

장성군과 경계 광주 해산마을 주민들 "피해는 우리가 입는데…" 분통

지난 15일 밤 9시부터 시간당 최고 7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진 광주시 북구 월출동 해산마을은 '물 폭탄'을 맞은 듯 처참했다. 이 마을에서 100m 가량 떨어진 하천의 제방은 폭포수처럼 쏟아진 비의 위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무너졌다. 붕괴 된 하천의 물이 유입되면서 마을은 물바다가 됐다.

16일 이 마을에서 만난 김순심(여·67)씨는 "평생을 이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제방을 무너뜨릴 정도의 이런 무서운 비는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 43세대 90여 명의 주민은 이날 오전 8시께 폭우가 마을을 끼고 도는 폭 8m, 높이 3m의 용산천 제방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일순간 고립됐다.

용산천은 광주시 북구 월출동과 장성군 진원면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번에 붕괴 된 제방은 장성군 진원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무너진 제방 길이는 8m이다. 거대한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마을은 온통 아수라장이 됐다. 그야말로 수상도시였다.

마을 주민 이모(여·63)씨는 이때 큰 변을 당할 뻔 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의 물이 집안으로 밀려드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온 이씨는 무릎 깊이 가량 찬 도로를 걷다가 급류에 휩쓸리려 하자 집앞 대문을 붙들고 버텼다. 다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20여 분만에 구조됐다.

집중 호우가 내린 16일 장성군 진원면 용산천 제방이 폭우로 8m 가량 유실됐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의 물이 범람해 광주시 북구 월출동 해산마을(사진 윗쪽)이 물에 잠겼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마(水魔)가 할퀴고 간 주택과 농경지는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143㎜.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북구청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 주민들은 이날 "제방이 무너져 물 난리가 났다"며 북구청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북구는 직원과 굴삭기 1대를 마을로 보냈으나 현장 도착 직후 "유실된 제방이 장성 구역"이라며 관할 행정구역을 따지며 철수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덤터기'까지 쓰기 싫은 것이다. 현재 장성군 소속 직원 10여 명이 굴삭기 2대를 이용, 무너진 제방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마을 주민 박모(65)씨는 "우리 마을에서 제방까지 거리가 불과 100m도 채 되지 않는다"며 "제방이 무너지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북구 주민들인데,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왔다가 그냥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세금을 장성군에 내느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관할구역이 아닌데다, 우리 관내에도 수해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니어서 철수 시켰다"며 "철수된 인력과 장비는 다른 피해지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집중 호우가 내린 16일 광주시 북구 석곡동 신촌마을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주민 20명이 구호 물품으로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비만 오면 대피소 신세 이주대책 세워 주세요"

북구 신촌마을 주민들

"장마철에 비만 오면 밤잠을 설칩니다. 제발 이주대책 좀 세워 주세요."

16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북구 석곡동 신촌마을 마을회관 겸 대피소. 폭 12m, 높이 3m의 하천을 끼고 세대를 이뤄 사는 주민들에게 침수 피해는 연례행사다.

45가구 100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은 제4수원지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곳이다. 제4수원지에서 방류한 물이 하천을 범람시켜 허벅지 깊이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였다.

마을 주민 문성식(46)씨는 "태풍이 며칠씩 오면 허리까지 물이 차오를지 모르겠다. 물이야 비가 올 때마다 넘치는데,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며 "마을이 물에 잠기지 않고 여름을 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최근 마을에서 200m 떨어진 하천 건너편에 마을 회관 겸 대피소가 마련됐다.

그동안 이 마을 주민들은 비가 오면 남자들이 하천 둑까지 나가서 내다본 뒤 범람 위기가 닥치면 마을 뒷산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해왔었다.

하천 범람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마을 주민들은 '큰 물'이 닥치지 않길 바랄 뿐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장마철 단골 침수지역으로 꼽히는 이 마을 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 보상비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

마을 주민 김성섭(45)씨는 "제4수원지 수문 조절만 잘해주면 되는데, 올 여름은 어떨지 모르겠다"며 잔뜩 찌푸린 하늘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칠산대교 현장 50대 추락사

15일 오후 6시10분께 영광군 백수읍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조모(51)씨가 바다에 추락해 숨졌다.

목포해경은 "휴식을 취한 뒤 작업을 하려는데 조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亡者 땅 가로챈 현대판 봉이 김선달

쌍나팔

○…아파트 부지 매입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꾸며 사망한 사람의 땅을 가로챈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일당이 경찰서행.

○…광주경찰청은 16일 시행업체 대표 하모(55)씨 등 2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장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하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 초께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신축부지 매입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A씨 등 9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뒤 이들 소유 10필지(4억2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

○…이들은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이미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친척으로 위장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행세.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복지법인서 수천만원 '뒷돈' 전 광주시청 간부 징역 3년

광주지법, 7천만원 추징

광주지역 사회복지법인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광주시청 간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6일 복지시설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광주시청 전 사회복지과장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7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복지법인 업무를 맡는 주무과장으로서 민원인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부하 직원 등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관리했다"며 "또 돈을 주고 모 기관 고위직에 오른 것도 모자라 뇌물로 받은 돈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주시 사회복지과장과 노인복지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6년 사회복지법인 등의 설립허가와 보조금 지급 등의 대가로 복지시설 대표들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3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광주 모 복지시설 운영평가와 관련, 심사위원 청탁비를 빌미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모 인력개발원 원장 변모(49)씨에게 '호남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대가성 뇌물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건설현장서 돈 뜯은 사이비 기자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6일 건설 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일간지 기자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2년 12월 광주시 남구 한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200만원을 받는 등 5개 업체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3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지적장애 친형 보조금 3천만원 가로채

함평경찰, 50대 구속

함평경찰은 16일 지적장애 1급인 친형의 기초수급자 보조금을 수년간 가로챈 노모(5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형(58)의 보조금 지급 통장에서 모두 84회에 걸쳐 3천여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또 같은 기간 병원과 약국 등에서 장애1급인 형 명의로 진료를 받고 약을 타는 수법으로 200여만원의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노씨는 2002년 장애1급 판정을 받은 형이 지적장애로 보조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점을 노려 형을 함평읍에서 노숙생활을 하도록 방치한 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